

코로나19 시대, 사회배제 대응의 국가 책무

김부겸 | 국무총리

『보건복지포럼』 4월 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그동안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꾸준히 연구 성과들을 발간해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사회배제를 주제로, 소득·건강·노동·정치·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국민이 보유한 사회자본의 실태와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봅니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공동의 규범과 목표, 사회 참여 등을 통해 형성되는 삶의 요소입니다.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사회자본이 고르게 잘 형성되고 편차가 적어야 하며 지속성 있는 사회자본 구축이 필요합니다. 반면 사회자본이 결핍된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배제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회배제는 단순히 정부 정책 수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차원을 넘어 일상적인 문제

해결의 어려움, 사회 참여에서의 장벽, 심리적 단절, 자존감 상실, 건강·노동 불평등은 물론 소득·경제 불평등의 고착화 등 한 개인의 삶에 총체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사회자본 보유 현황과 사회배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근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감염병들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국민 모두가 이 감염병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높은 전염력과 치명률로 인해 정부는 때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고, 방역 일선에서 의료진이 정말 치열하게 싸운 노력 덕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의 사망률을 보이며 이 감염병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역과 관련한 의무 사항들을 크게 줄이면서, 일상의 의료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관리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일시에 해소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백신의 정기적인 접종과 감염자 치료 등 일상적 의료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외의 새로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체계 전반과 사회안전망을 재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문제는 이번 호에 실린 여러 연구들처럼 코로나19가 더욱 악영향을 미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한 K방역은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 19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K자 회복'을 통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제조공정과 유통, 서비스 분야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가 받은 타격은 적었습니다. 그 결과 공장이 멈추지 않은 한국으로 생산설비를 옮기는 일도 일어났고, 수출, 무역, 벤처 투자 등의 분야에서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내수 경기는 크게 침체되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와 연계된 일자리가 크게 줄었으며, 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이 위태해졌습니다. 대면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복지 수혜 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리도 그 이전에 비해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배제 문제는 더욱 악화될 위험성이 큼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건복지포럼』 4월 호에 실린 연구들이 전반적인 사회배제는 물론 소득, 건강, 노동, 정치·사회 참여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내놓은 정책 제언들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정부가 어떤 관점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술적인 연구로서뿐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도 매우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책연구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전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왔고, 이 연구들은 대한민국의 사회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로도 변함없이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명을 다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㉞
